

신을 굳게 믿은 대과학자

미국 워싱턴대학사 회학 저명한 교수 로드 니·스타크는 그의 저서 “신의 영예”에서 《신을 신앙했기에 과학은 진정으로 흥성하게 되었다. 16 세기와 17 세기는 과학발전이 비교적 빠른 시기라 할지라도 주요한 과학자들중 절대다수는 경건한 기독교신자들이였고 그들이 과학발전에서 성취가 뛰어나게 된것은 신의 걸작을 증실하는 책

임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스타크교수는 또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흥성하게 발전 하했던 시대의 위대한 과학자 디칼, 갈리레이, 뉴턴 등을 망라하여 그들은 모두 조물주신을 절대적으로 신앙했고 신의 걸작은 법칙에 따라 순환 할수 있으며 과학자들로 하여금 발견하고 증실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인정했다.》사실상 “과학 혁명”시기는 종교신앙을 저버린것이 아니라 신의 존재를 굳게 믿고 신의 존재와 위대한 사람들이 주도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대과학자 뉴턴은 종래로 자신이 신을 신앙하고 숭배하고 있음을 감추지 않았다. 1713년에 그는 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신은 지혜가 많은 만능의 생명이고 신은 일체를 주재하며 모르는 것이 없고 없는 곳이 없으며 영생불멸한다…… 소경이



과학의 거장 뉴턴은 만물존재의 배후에 한 지혜가 큰 만능의 신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색갈에 대한 개념이 없는것처럼 우리 인류는 큰 지혜를 가진 신이 어떻게 만물을 동찰하고 료해하고 있는가에 대해 모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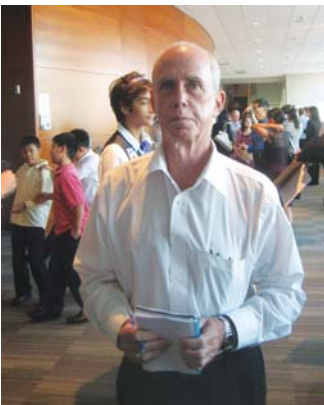
뉴턴은 1692 년과 1693 년에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후 만물존재의 배후에 한 큰 지혜를 가진 만능의 신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라고 썼다.

1914 년, 무신론자이며 미국심리학자인 안무스·롭바는 “미국과학가명인”책에 수록된 과학자들에게 문답편지를 써서 조사했다. 그는 조사결과 실망했다. 42%과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 1996 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20 세기 과학의 어버이라고 불리운 아인슈타인은 진정한 과학자가 신을 믿음으로 하여 휘황한 성과를 얻은 대표이다. 1921 년에 그는 한 나젊은 물리학자에게 《난 신이 어떻게 세계를 창조했는가에 대해 알고싶다.》라고 말했다.

스타크교수는 《과학이 발전하자면 반드시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고취한 사람들은 과학발전 상에서 아무런 작용도 발휘하지 못하고도 과학의 창도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무신론자들이다.》라고 말했다.

신앙이 세계 제1



지난 8 월 7 일, 신운국제예술단은 미국 텍사스주 수도 오스틴에서 공연 하여 각계 명류들의 환영을 받았다.

미국 국가발레 예술가 컨·월스(왼 쪽 사진)는 《신운은 절대적으로 세계에서 제일이다. 그 어떤 예술단체나 예술표현형식은 신운과 아름다움을 비할 수 없다. 신운은 중국의 진정한 전통적 문화예술을 표현했으며 대단히 전통적이다.》라고 찬양했다.



사부님께서 이끄시는 법선

영국관중들의 인기를 끈 파룬궁대오



지난 8 월 8 일 오후, 영국파룬궁학원 시위 행진대오는 더딘불 예술절시위행진에 참가했다. 아름다운 부채춤, 5 조공법을 표현한 꽃차대(윗 사진), 즐거운 요교대의 북소리는 관중들의 인기를 끌었다.

독일유람객들의 지지를 받은 파룬궁



지난 8 월 7 일, 독일, 스위스 파룬궁학원들이 독일의 저명한 풍경구 티티호수에서 중공이 11 년동안 파룬궁을 박해한 진상을 폭로했다. 세계각지에서 온 수많은 유람객들은 파룬궁에 대해 심심한 동정과 지지를 표시했다.

파룬궁진상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Partnerland China: Wo der Mensch keine Rolle spielt

Regensburg hat nun einen guten Draht in ein Land, in dem eine Partei das Sagen hat

Von Sabine Oberpriller

Die Regensburger Stadtbibliothek mit der chinesischen Stadt Qindao ist seit dem Gegenbesuch der chinesischen Delegation Ende Juni nun engdlig vernetzt. Und doch hat die neue Verbindung einen faden Dechsel: innerlich ist China ein Land der Lächer. In dem Demokratie nicht existenzial existiert und Menschenrechte kühn nach menschlich werden. Mit dem Thema befasste sich am Freitag der Vortrag von Ulf Römer.

meist Mitglied der internationalen Gesellschaft für Menschenrechte, und Ming-Teng-Schwägerin aus Shanghai, die im Zuge eines Projekts über Menschenrechte in China, bei laufende Schulungen Regensburger Land geleitet werden sollen.

Mit Fotomaterial und anhand der Beispiele von Tibet und der Falun Gong-Bewegung, der auch Ming-Teng-Schwägerin angehört, machte die beiden den betroffenen und angelegentlich kauschen und schnell klar, dass China auch in diesem Jahrtausend noch immer der Folterstaat Nummer eins ist, wie Ulf Römer sagt. Er, der auf seinen privaten China- und Tibetreisen Informationen in die jeweilige Bevölkerung einschleift, berichtete von 2000 Hinrichtungen jährlich, den 36 Konzentrationslagern, die 70 Millionen Mitglieder und auch wegen ihrer Werke Wahntätigkeit, Barmherzigkeit und Nic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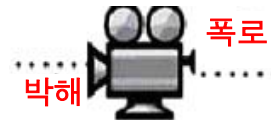


Bildlich demonstriert Ulf Römer: China achtet keine Menschenrechte. Im Hintergrund Ming-Teng-Schwägerin. (v.a.)

sicht bringen eine starke Moral mit sich. Zuvor für die Regierung? Jederfalls starbte diese eine umfassende Verfolgung noch kurz vor der Olympiade in Peking Anhänger kamen in die Anhaltungen wurden gefoltert. Und die Bevölkerung weiß nichts, sie wird belogen und betrogen. „Einst in Deutschland führte ich die Wahrheit über das Regime. Ich konnte es nicht glauben. Und ich habe sie so lange unterstützt“, berichtet Teng-Schwägerin kopfschüttelnd. Doch sie hat auch Hoffnung.

7 월 7 일, 독일 “레겐스보주간”보에 중국인권 현황에 관한 강연을 보도했다.(윗 사진) 국제인권 협회의 우즈·로머선생은 중국에 와서 여행하면서 대량의 자료와 도판을 수집한적이 있다. 그는 《본 세기에 중국은 여전히 세계상에서 으뜸가는 폭행 국가이다.》라고 말하고 나서 중공이 감행한 매년 사형한 1 천사례, 36 곳의 집중영의 정황, 심문과정에서 늘 보게 되는 혹형 레하면 불로 지지기, 전기충격, 유리쪼각위에서 걷기, 인체기관적출 등을 폭로했다.

파룬궁학원 등민녀사는 중점적으로 중국에서 파룬궁학원 생체에서 기관을 적출하여 고가로 팔아먹은 폭행을 견책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공멸망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중국에서 7 천 6 백만 용사들이 당조직에서 퇴출한 이 소식은 레겐스보에 희망을 가져다주었다.》



폭로

연변 박해 소식

■ 최근에 훈춘시인민법원에서 파룬궁학원 장흥재(张兴才)、장배제(张培齐)、김광일(金光日)을 불법적으로 각각 3 년, 4 년, 2 년 판결을 내렸다.

■ 최근에 류리걸식하던 파룬궁학원 리룡춘(李龙春)은 화룡시팔가자진파출소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8 월 11 일 오전 8 시경에 이도백하림업국 국보대대, 파출소, 가두사회구역 악인들이 결탁하여 반봉금(潘凤琴), 가수염(贾秀艳), 방계지(方桂芝)을 랍치했고 또 장백산보호개발구지북공안국 및 광명사회구역 악인들이 파룬궁학원 조애수(赵爱秀)를 랍치하여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 지난 8 월 11 일, 파룬궁학원 수아권(隋亚权), 갈수영(葛秀英)이 불법적으로 랍치되었다.

■ 지난 8 월 13 일 아침, 왕청동광향목단촌 파룬궁학원 리문서(李文书)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어 박해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더욱이 파룬궁을 박해하고 모독하고,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앞날과 생명을 확보하기를 바란다.

